

가온반의 하루일과를 통해 본 교재·교구의 의미

김경철, 고진영*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Meaning of instructional materials based on the daily work of class Kaon

Kyung-Chul Kim, Jin-young Go*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약 본 연구는 어린이집 영아반의 하루일과를 관찰함으로써 교재·교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 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 교재교구 인증평가에 시사점을 주고자 하는 질적 연구이다. 교재·교구가 영아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하여 문화기술지 방법을 택하였다. 특히 자유선택활동에서의 영역별 교재교구를 활용한 활동 뿐 아니라, 식사 시간, 낮잠시간, 및 바깥놀이까지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참여관찰과 교사면담, 현장노트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영아의 특성상 언어적 표현 뿐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관찰이 필요할 경우 이를 보다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캠코더 촬영도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얻은 연구자의 관찰기록 노트, 교사 면담자료, 표준보육과정 지침서, 어린이집 연간 및 주간보육계획안, 보육과정 평가서 등의 각종 문헌을 통해 얻은 자료를 분류하고 유목화하는 귀납적 분석 방법으로 자료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영아들에게 교재교구는 첫째, ‘맞이하고 놀아주는 내 친구’, 둘째, ‘포근한 나의 보금자리’ 셋째, ‘또 한분의 선생님’ 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를 토대로 보육시설의 영아용 교재·교구의 비치 기준안을 재정립할 것과 추후 교재·교구 인증평가 시, 영아들이 사용하는 교재·교구의 대상을 비품형 교재·교구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eaning of instructional materials by observing the daily work of an infant class in a daycare center to make some suggestions on the accreditation and evaluation of instructional material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educare. Ethnography was chosen to determine in detail what the instructional materials meant for the selected preschoolers. The activities that belonged to each area of free optional activities and made use of instructional materials were observed, and the eating time, nap time, and outdoor play were all observed. The data were gathered by visiting the selected daycare center. A participant observation and teacher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notes were taken on the spot. When their verbal expressions and nonverbal expressions needed to be observed owing to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a camcorder was used to record their words to have a more profound understanding of them. All the collected data that included this researcher's observation note, the teacher interview data, the standard childcare curriculum manual, the daycare center's yearly, and the daily childcare plans and curriculum evaluation data were classified and categorized by performing an inductive analysis. As a result, the instructional materials had three meanings for the infants. The first was "friends who welcomed them and whom they could play with." The second was "a cozy nest," and the third was "another teacher." Given the findings of the study, the preparation of standards for instructional materials for infants in childcare facilities is required, and even equipment that is used as instructional material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instructional materials for infants are accredited.

Keywords : Daily work, Infant, Instructional materials, Ethnography, System for instructional materials

*Corresponding Author : Jin-Young Go(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el: +82-10-6626-9460 email: bestgojy@naver.com

Received March 31, 2016

Revised (1st April 20, 2016, 2nd May 4, 2016)

Accepted June 2, 2016

Published June 30, 2016

1. 서론

2012년 3월부터 시행된 무상보육 정책으로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이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적용되었다.

유아의 경우 1969년부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꾸준히 제시되어왔고, 유아의 특성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해왔다. 또한 효과적인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교수 매체로써의 다양한 교재·교구 및 시설·설비기준안도 마련되어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영아의 경우, 갑자기 늘어난 보육수요로 인하여 전국에 약 4만 여개가 넘는 보육시설이 생겨났지만 영아의 보육환경을 위한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며, 영아를 위한 교재·교구 기준안조차 마련되어있지 않다.

특히 초과수요의 대표적인 만 0-2세의 영아들은 발달적 측면에서 볼 때, 주변의 물체를 손과 입으로 탐색하며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기초를 이루는 시기이다. 흔히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놀잇감을 주었을 때 대부분 손으로 만지다가 이내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자주 보았을 것이다. 이러한 영아기의 탐색은 만 3-5세가 되어 다양한 놀잇감 - 그림책, 블록, 주방도구, 게임판, 점토놀이 기구 - 을 통하여 언어 발달, 수·과학적 개념 인식, 사회 학습, 조형능력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한 기저가 되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다. 영아반의 보육활동과 교수매체로서의 교재·교구 역시 이와 같은 발달적 측면을 고려해야한다. 여기서 교재·교구란 영·유아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자유선택활동, 실외활동, 대·소집단 활동, 일상적 양육활동 등 보육과정 속의 모든 활동에서 사용되는 교수매체를 의미한다.

2007년 여성가족부에서 고시한 영아에 대한 보육과정을 포함한 표준보육과정에서는 각 연령·집단별 내용을 수준별로 나누어 구분한다. 수준이란 연령, 발달, 개인차를 말하며, 만 2세 미만 영아들의 경우 1:2:3 수준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보육활동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재·교구에 대한 기준은 마련 되어있지 않으며, 보육시설 인가 시에도 교육 및 보육에 적합한 교재·교구 마련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로 인해, 영아반 교사들은 교재·교구의 적합성이나 안전, 교육성에 혼란을 겪으며 인기 있는 상품형태의 장난감을 구매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자칫 무분별한 교재·교구의 사용은 영아의 보육활동을 방해함은

물론 인증되지 않은 놀잇감의 경우 영아의 위생·건강·안전까지 위협하는 존재가 된다. 이는 곧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오랜 시간 보육시설에서 지내는 영아들에게 보육실은 일상적인 생활공간이며, 탐색과 놀이가 일어나는 교육의 장이다.[1] 즉, 보육시설은 가정과 같은 아늑함과 교육적인 요소를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대개, 보육시설의 환경은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과 놀이를 통한 학습을 하는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상생활을 위한 환경은 개인장, 수유 및 식사 공간, 낮잠 및 휴식 공간의 영역을 의미하고, 놀이를 위한 환경은 실내와 실외의 놀이 영역을 의미한다.[2] 일상생활을 위한 일상적 양육과 놀이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은 물리적 형태로써 구분할 수는 있겠으나, 영아에게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를테면, 동물농장 노래가 흘러나오는 보육실에서 부드러운 재질의 개인 침대에 누워 토끼와 양 모빌을 만지며, 교사와 눈을 맞추며 용알이를 하는 영아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타인에 대한 조망능력이 미숙한 영아기는 또래와 대화를 나누면서 사회적 역할을 익히는 단계인 유아와는 다르다. 특히 영아가 어릴수록 타인에 대한 인식보다는 물리적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 구성주의 대표학자 피아제[3]는 인간은 출생에서부터 그가 속한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식을 형성하고 사회의 규범을 알아가며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힐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영아를 위한 물리적 환경은 발달단계에 맞게 되도록 풍성하게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교재·교구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아용 교재·교구 평가인증에 관한 산업체의 인식 및 요구를 알아본 김경철, 정세호[4]와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유아용 교재·교구 활용에 대한 품질인식과 인증평가제도 적용에 대한 강영식, 박정환[5]의 연구, 유아교육·보육 교재·교구 인증평가의 과제와 전망[6]에 대하여 논의한 연구 등 유아나 교재·교구 업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수 있지만,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지침서에 제시되어 있는 교재·교구의 종목을 근거로 하여 어린이집의 영아반 교재·교구 비치실태와 필요여부의 인식을 분석한 심유미[7]의 연구뿐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온반의 하루일과를 통해 본 교재·교구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이다. 영아반(만0,1세) 하루전반을 관찰하여 물리

적 환경으로써의 교재·교구의 의미를 탐색해 보고, 이를 통하여 교재·교구에 대한 구체적인 심층적인 이해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더불어 추후 보육시설의 교재·교구 및 설비 관련 기준안 마련과 요즘 대두되고 있는 교재·교구 인증평가에 도움이 되고자 연구를 실행하는 바이다.

2. 본론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방법 중 하나인 문화기술지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화기술지를 선택한 것은 영아들의 하루일과를 통하여 그들만이 가지는 교재·교구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교재·교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함이다. 문화 기술지는 참여 관찰과 심층인터뷰가 연구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2015년 11월 16일부터 2016년 2월 12일까지 S시에 위치한 Y어린이집 만 0,1세반 영아 5명과 교사 2명을 대상으로 주 2회 참여관찰이 진행되었다. 월 4-5회 교사와의 면담 및 집단대화를 실시하였으며, 개별면담의 경우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비형식적인 구조로 이루어졌다. 개별면담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메모하거나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녹취하여 면담 내용은 전사하여 문서화 하였다. 또한 영아의 발달 특성 상, 언어보다는 눈빛, 몸짓, 교사나 교재·교구와의 비언어적 상호작용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여 캠코더를 이용한 동영상 촬영이 함께 이루어졌다.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Marriam의 삼각측정법[8]에 입각하여 진행되었다. 삼각측정법은 시간이나 공간, 연구자의 시각 등을 다르게 하여 수집한 연구 자료와 분석 결과를 다시 검토함으로써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는 방법이다. 주기적으로 이루어진 참여관찰, 교사·영아간의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자의 관찰기록노트, 교사 면담과 표준보육과정지침서, 어린이집 연간 및 주간보육계획안과 하루일과표, 교재·교구 목록집, 월간 보육과정 평가서 등의 각종 문헌 고찰을 통해 얻은 자료 등을 분류하고 조직하고 유목화 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맛이하고 놀아주는 내 친구’

영아반(만0,1세)의 하루일과는 등원 및 맞이하기, 정

리정돈 및 기저귀 같이 및 손씻기, 이유식 및 오전간식, 오전 실내 자유놀이, 실외활동, 점심식사 및 수유하기, 낮잠자기, 기저귀 같이 및 오후간식, 오후 실내 자유놀이, 귀가로 이루어진다.

오전 자유놀이가 진행되던 중 정우가 등원을 한다. 교사는 “잘자고 왔어요?” 라고 말하며 영아를 안아주며 가방을 받는다. 보육실 바닥에 영아를 내려놓자 정우는 탐색영역으로 기어간다. 탐색영역에는 우현이가 소리나는 사진기로 놀이하고 있다. 교사는 “정우도 사진기 가지고 놀고 싶구나, 여기 또 있네.” 라고 말하며 똑같은 사진기를 건네준다.

- 1월 11일 연구자 관찰노트 -



Fig. 1. Sensory material

“유아들의 경우 등원할 때 00친구가 기다리고 있대, 어제 만들던 비행기 다시 만들어볼까? 라고 말하면서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고 올 수 있는데 영아들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영아가 흥미를 끌 수 있는 놀잇감을 가지고 나가서 엄마와 헤어질 수 있게 해요.

- 11월 23일 Y교사 인터뷰 -

“지윤이가 엄마 품에서 떨어지지 않아서 보육실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윤이가 엄마 품에서 버둥거리며 어머니가 보육실 바닥에 지윤이를 내려놓자 정말 빨리 기어가서 감각놀이교구를 잡는거예요. 엄마가 불러도 장난감만 만지고, 물고, 던지며 놀이를 했어요. 덕분에 엄마랑 잘 헤어졌죠. 그 후에도 한참을 놀더라고요.”

- 11월 26일 K교사 인터뷰-

영아반에서의 교재·교구는 단순히 장난감으로서의 기능이 뿐 아니라, 애착물이자 놀이상대로서의 역할을 한다. 본래 애착은 부모와 같은 양육자와 맺는 친밀하고 신

피로운 관계를 말하는데 교재·교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와 떨어져 낯선 환경에서 지내게 되는 영아에게 엄마와 같이 위안을 주는 존재가 된다.

외국의 연구를 보면 이러한 애착물이 유아를 안정시키고 어머니를 대신해서 아이를 달랠 수 있을 정도이며, 어떤 아이는 어머니보다 오히려 애착물을 찾는다고 한다.[9]

유아의 경우 놀잇감을 통하여 또래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한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을 인식하기 전 단계인 영아의 경우 놀이 상대자로서의 교재·교구의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보육시설에서 안정된 적응을 도우며 동시에 또래의 역할을 대신한다.

2) ‘포근한 나의 보금자리’

영아반에는 아기를 위한 침대, 바운스 스윙 등 영아의 개별적 욕구를 위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개인차가 많이 나는 영아반에서는 일상적 양육활동을 위한 공간을 구성해 놓아야 하며, 이러한 공간을 구성할 때에는 영아의 개월 수와 발달, 선호에 맞는 교재·교구를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



Fig. 2. Infant bed

점심 식사 시, 제일 먼저 분유를 먹은 정우는 바운스 스윙에 눕는다. 교사는 바운스 스윙을 움직여 준다. 영아는 바운스 스윙에 달린 촉감인형을 만지며 하품을 한다. 교사는 정우를 토닥여주며 부스터에서 밥을 먹는 서현이의 식사지도를 돕는다. 의자와 책상이 서로 분리 가능한 부스터는 높이를 조절하여 끼울 수 있도록 세 개의 홈이 파여 있다. 서현이보다 키가 큰 지윤은 영아용 책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

- 1월 20일 연구자 관찰노트 -



Fig. 3. Bounce swing

“서현이는 점심시간이 되면 부스터에 앉아서 기다려요. 그런데 정우는 10개월밖에 안된 아가예요. 오전에 분유를 먹다가도 잠이 들기도 하고, 바운스에 눕는 것을 좋아해서 거기서 먹다가 잠이 들기도 하고 친구들 놀이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제가 품에 안고 책을 읽어주기도 하는데, 바운스에 비스듬히 누워서 듣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 11월 30일 K교사 인터뷰 -

“영아들 기저귀 갈이를 할 때, 늘 고민이 되요. 손소독도 하고 스프레이형 소독액을 사용하여 닦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완전히 소독이 되는 것인지 고민이 되요. 유아나 교사의 화장실이 있는 것처럼 우리반 아이들도 방수나 향균 처리가 된 매트, 머리 보호대, 기저귀 갈이용 놀잇감이 있으면 좋겠어요.”

- 12월 4일 K교사 인터뷰 -



Fig. 4. Booster

현재 우리나라의 교사 대 영아의 법정 비율을 살펴보면 만 0세의 경우 교사 1명당 3명의 영아를, 만 1세의 경우 교사 1명 당 5명의 영아를 보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혼합반 구성원칙에 의하여 만 0,1세는 같은 반에서 보육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때는 가장 급진적인 발달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같은 해에 태어난 영아더라도 개월 수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기어 다니거나 걸어 다니는 아이들이 한반에 있기도 하고, 분유를 먹는 아이와 이유식을 하는 아이, 밥을 먹는 아이가 같은 반으로 편성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원활한 보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영아의 정서적 안정감을 꾀하고 교사가 영아의 발달에 맞게 돌볼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교구들이 필요하며 이는 안전과 위생을 담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단순히 영아를 보호하거나 혹은 놀이와 분리시키기 위한 비품이 아닌 일상적 양육 속에서 자연스럽게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고안된 비품형 교재·교구들이 개발·보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재·교구들은 양적으로도 한정되어있으며, 그것마저도 보육 및 유아교육기관의 필요나 재정적 여건에 때문에 구비가 어렵다. 또한 보육시설 인가 및 운영 시, 영아를 위한 교재·교구의 안전성이나 위생에 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3) ‘또 한분의 선생님’

가운뎃의 실외활동 시간을 통하여 살펴본 바, 대·소근육 발달이 미숙한 영아기에는 이동능력향상과 안전을 위한 교재·교구가 필요하며 이때 사용하는 물품은 영아들에게 교구이자, 교사의 역할을 돕는 존재이다.

실외활동 시, 창밖을 보며 교사는 “날씨가 어때?, 저게 무엇이지? 눈이 내린다.” 라고 말하며 영아들과 창문밖을 본다. 창문을 붙잡고 일어서서 바라보거나 두드리는 영아들에게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나갈 수가 없어요, 감기 걸린 친구들도 있고, 길이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한다.

- 1월 29일 연구자 노트 -

“산책을 나가려는데 성민이가 잠이 들었어요, 감기가 걸려서 컨디션이 안 좋은 영아들을 돌보기 위하여 교사 1명이 교실에 남았고, 저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갔어요. 정우를 유모차에 태우고, 걷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무지개손을 이용하여 함께 주변을 돌아보고 왔어요. 어떤 날에는 끝차를 사용하기도 해요. 비록 아이들이 많이 타려고 하면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에서 힘 조절이 필요하지만 마음은 놓여요.”

- 1월 4일 Y교사 인터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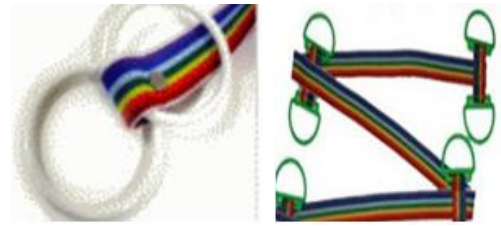


Fig. 5. Rainbow hand (band led)

“아이들이 어려서 실외활동을 못할 때가 많아요. 외기욕으로 대체하기도 하는데, 신체활동을 매일 해야 하는 시기에 교실 밖을 못나가게 되면 미안하죠. 어떤 때는 아이들이 먼저 알고 문쪽으로 가서 나가자고 청얼거리기도 해요. 밖에서 놀고 오면 아이들이 잠도 잘자고 오후 시간에 훨씬 기분이 좋아져요. 날씨가 안 좋을 땐, 실외놀이용 텐트나 대체활동으로 할 수 있는 감각운동을 할 수 있는 교구들이 다양하면 좋을텐데, 고무공이나 풍선 외에 영아들에게 제공해 줄 만한 교구가 별로 없어요.”

- 12월 21일 Y교사 인터뷰 -



Fig. 6. Wagon

실외놀이 환경의 질적 수준은 영아들의 놀이 수준과 행동에 영향을 주므로 영아들의 발달에 적합한 실외놀이 환경과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10] 구체적으로는 감각운동적으로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대하여 경험하고 학습하는 시기의 영아들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다양한 감각적 경험과 운동놀이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끊임없이 새로운 발견과 탐색이 가능한 도전적인 환경이어야 하며, 단순하고 위생적이며 영아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11] 만약 무지개 손이나 산책용 끝차와 같은 신체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영아들의 이동을 돕는 교재·교구가 구비되어있다면 실외놀이 탐색이 가능함과 동시에 보행 시, 안전도 보장한다. 반면, 이

러한 교구들이 준비되지 않을 경우 스스로 환경을 선택하거나 개선시키기 어려운 시기의 영아들에게는 실외활동의 기회마저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온반에서의 등원에서부터 하원에 이르는 하루일과를 통한 교재·교구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영아반의 교재·교구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재·교구는 단순히 장난감이 아닌, 애착물이 될 수 있다. 즉, 영아에게 교재·교구는 탐색물 자체이기도 하지만, 주위 환경에 대한 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영아는 발달의 특성 상, 유아에 비하여 교사,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적고 상대적으로 교재·교구와의 교류가 많다. 부드러운 형질으로 된 인형이나, 소프트 블록, 소리가 나는 여닫이 문, 사운드 북등의 감각교구들은 영아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놀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가온반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촉감이 좋은 교재·교구를 오랫동안 손에 쥐고 있거나, 놀이하다 함께 잠이 들고, 탐색을 위해 입으로 가져가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다. 특히, 하루 일과 중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등원이나 학기 초와 같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시기에 이러한 교재·교구들은 부모와 잘 헤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어린이집 적응기간에 교실의 놀이감이 영아들을 교실세계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며 마음에 안정감과 위로를 받는다는 구수연[12]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며 양육자를 대신하여 영아의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한다.

둘째, 교재·교구는 교사로 하여금 영아의 발달에 맞는 일상적 양육을 가능토록하고 영아에게는 먹거나, 자는 등의 활동과 놀이가 분리되지 않고 동시에 가능하도록 돕는다. 만 1세 영아반 교사가 하루일과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조미숙[13]의 연구에서 살펴보면 보육교사가 자조기술이 부족한 영아를 개별적으로 돌보는 과정에서 육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호소하며 영아교사의 보살핌을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간구성의 방안을 강구한다. 본 연구의 결과 비품형 교재·교구가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식사와 간식, 낮잠 시 사용하는 바운스 스윙과 같은 비품형 교재·교구는 영아가 수유나 이유식

을 하면서 동물, 도형 모양, 벨 소리 등 다양하게 구비된 탐색적 요소를 이용하여 놀이를 지속할 수 있으며 일상적 양육을 흥미롭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즉, 놀이감이 결합된 비품형 교재·교구는 개인차가 큰 걸음마기 단계에서 24개월 이전 영아들의 개별적 요구를 수용하여 식사 및 수면지도가 용이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비품형 교재·교구의 놀이 요소는 식사 전후와 수면 전후에도 교재·교구를 이용한 탐색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한다.

셋째, 영아들에게 교재·교구는 안전한 실외활동을 인도하는 제 2의 교사이다.

실외활동은 아이로 하여금 자연을 느끼며 정서적인 발달과 다양한 성인을 만나는 기회를 통한 사회발달, 자유로운 움직임을 통한 신체적 발달이 가능하도록 돕는 전인교육의 장이다. 그러나 날씨와 같은 외부 환경의 영향과 다소 미숙한 신체발달, 안전에 대한 염려, 영아 개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나이가 어린 영아들일수록 실외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는 곧 실외활동의 기회마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영아들의 실외놀이 운영 실태를 조사한 전수경[10], 이현경[14]의 연구에서도 만 1세반은 1/2정도만 실외활동을 실시하고 만 0세반은 거의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가온반과 같이 실외활동 시, 끝차와 무지개 손을 활용할 경우 영아들의 개별적 욕구를 수용할 수 있고 교사는 좀 더 안전한 실외활동을 꾀할 수 있다. 박종순[15]의 연구에서도 만 0,1세의 경우 연령의 특성상 배란다나 마당의 그늘에 나와 흔들침대나 유모차를 타면서 일광욕을 하거나 바깥공기를 쐬는 등의 활동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영아들에게는 실외활동에서의 적합한 교재·교구의 활용이 신체적 성장과 운동능력 발달을 제공하고 보다 안전한 실외놀이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여 얻어진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인간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행위를 배우는 과정을 교육이라고 본다면, 보육시설의 영아의 하루일과는 교육의 전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면에서 등원에서부터 언어영역, 탐색영역, 신체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자유 놀이 활동과 기저귀 같이 및 간식 이유식 및 수유 등과 같은 일상적 양육영역의 교육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아들은 적게는 3시간에서 많게는 12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고 있

으며, 연령이 어린 아이들일수록 일상적 양육은 영아에게 하루일과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놀이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 시간동안의 질 높은 교재·교구와의 상호작용은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영아에게 놀이는 자유놀이와 일상적 양육에서의 놀이 두 가지 모두를 말하며 놀이를 위한 교재·교구 제공 및 제작 시에도, 자유놀이와 일상적 양육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루일과속에서 지속적으로 놀이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현재 만 0세부터 만 5세가 다 함께 재원하는 보육시설이나 영아 전담어린이집의 경우 통합보육이나 혼합반 구성 시, 적합한 교재·교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살펴본 바, 놀이요소가 있는 비품형 교재·교구를 포함시켜 영아반 교재·교구 기준안을 정립할 것을 강조하며 여기에 영아의 발달에 맞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교재·교구의 세부지침이 요구된다.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교재·교구 인증평가와 관련하여 기준 마련 시, 평가 항목에 영아용 교재·교구 평가 항목을 고려해 볼만 하다. 이는 아동 발달의 연속성이라는 측면과 유보통합을 눈앞에 둔 지금의 시점에서 충분히 논의해 볼만 하다. 나아가 교사들의 요구와 교재·교구 구비 실태를 파악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거나, 기술부족과 재료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구비하지 못하는 교재·교구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추후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영아용 교재·교구의 개발·보급도 제언 해 본다.

References

[1] Y.H Jang , Study on Enhancing The Quality of After-School Care Programs for Childre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Dankook University, MS Thesis, 2000.

[2]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hildcare program for age 1, Korea Institute of Childcare and Education, 2010.

[3] Piaget, J. Play, dreams and imitation in childhood. New York: W. W. Norton. 1962.

[4] K.C Kim, & S.H. Jung., "View of Industries on the Development of Accreditation System for Instructional Materials and Equipment," Proceedings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Fall Conference, pp. 977-981, 2013.

[5] Y.S. Kang, & J.H. Park. A Study on the Perceived Quality and Application of Authentication Evaluation System of Teaching Materials and Implements for Children and the trend in Early Childhood. Journal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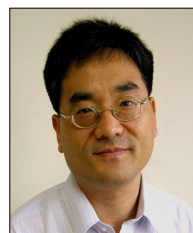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PP. 5601-5609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11.5601>

- [6] Y.C Choi, The Prospects and Tasks of Accreditation System for Instructional Materials and Equipmen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PP. 5924-5930,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9.5924>
- [7] Y.M. Sim, Analysis on Educational Materials of Toddler Classes in Child Care Center. The Graduation School of Gong Ju University, MS Thesis, 2012.
- [8] Messiam.S.B.(1994).trans.Mihwa Hur.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Seoul: Yangseowon.(The original book was published in 1998).
- [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87955&cid=40942&categoryId=32182>
- [10] S.K Jeon,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outdoor play conducted at the infant classroom in Daycare Centers and teacher's Awareness of that,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ion School of Ewha Women University, MS Thesis, 2008.
- [11] Y.J. Hur, Exploring The Educationl Meanings of Outdoor Play Experience on Toddlers.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ion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2009.
- [12] S.H. Gu, A Study on the Adatation Process of Toddlers to Child-Care Center. The Graduation School of Chung Ang University, Doctorate Thesis, 2004.
- [13] M.S. Jo, The difficulties that teachers of one year-old toddler class experienc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ion School of Sung Shin Women University, MS Thesis , 2016.
- [14] H,K. Lee. Toddler's Play Behaviors According to Indoor and Outdoor Environments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2, No. 1 PP. 97-121, 2007.
- [15] C.S. Park,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Teachers A wareness of Outdoor Play at Home Childcare Facilities. The Graduation School of Socoal Development Chung Ang University, MS Thesis, 2011.

김 경 철(Kyung-Chul Kim)

[정회원]



- 1988년 2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전공 (문학석사)
- 1993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전공 (문학박사)
- 1997년 3월 ~ 현재 :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 유아교수매체,

고 진 영(Jin-Young Go)

[정회원]



- 2008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전공 (문학석사)
- 2015년 3월 ~ 현재 :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유아교수매체, 영·유아 관찰 및 평가, 영·유아 인권교육